

기본세계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김 주 현*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이후,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계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34명(남성 77명, 여성 5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세계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기제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주요어 :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 제1저자: 김주현,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외상사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리적 증상으로, 침습,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주요 증상이다(APA, 2013). PTSD의 진단을 위해서는 외상사건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필수인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대인관계 외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무너뜨려,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Dutton, 2009; Kaufman, Allbaugh, & Wright, 2018). 최근 대인관계 외상의 양상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발생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Black et al., 2011). IPV는 과거 또는 현재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연인, 동거인, 배우자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김효정, 2022; Sugg, 2015). IPV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신뢰하는 상대로부터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PTSD의 발병, 유지 및 악화와 높은 관련이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다(Coker, Weston, Creson, Justice, & Blakeney, 2005; Flanagan, Jaquier, Overstreet, Swan, & Sullivan, 2014; Simpson, Raudales, Reyes, Sullivan, & Weiss, 2021).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IPV 피해자가 PTSD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TSD가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외상 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타인에 관한 인지적 신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sick & Schnicke, 1992). Ehlers와

Clark(2000)의 인지 모델에 따르면,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개인이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PTSS가 유발될 수 있다(Van Heemstra, Scholte, Ehling, & Boelen, 2020). 특히, 외상사건을 단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앞으로 언제든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로 평가할 경우,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외상 후 부정적인 신념은 높은 수준의 PTS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Agar, Kennedy, & King, 2006; Cromer & Smyth, 2010). IPV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이후의 높은 PTSS를 예측하였으며(Beck, Jones, Reich, Woodward, & Cody 2015; Dunmore, Clark, & Ehlers, 1997), 성폭력, 성적 학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연구(김소향, 최지영, 2018; Bailey & Morris, 2018)에서도 부정적인 외상 후 인지의 감소가 PTSS의 감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이후 PTSS가 나타나는 기제에서 인지적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론 중 하나는 Janoff-Bulman(1989, 1992)의 조각난 가정 이론(shattered world's assumptions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세계관(world assumptions)이라 불리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우호적이며(우호적인 세상), 의미 있고(의미 있는 세상), 자기 자신은 가치 있다(자기 가치).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며, 사람은 선하며 신뢰할 수 있고,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곳이라는 믿음은 개인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Janoff-Bulman, 1989, 1992). 그러나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폭력을 경

험한 후에는, 자기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며, 타인은 믿을 수 없고,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 불안, PTSS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Janoff-Bulman, 1989, 1992; Maschi & Baer, 2013). 기본세계관이 외상 사건 중에서도 대인관계 외상 피해자의 기본가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만큼(Janoff-Bulman, 1992; Lilly, Valdez, & Graham-Bermann, 2011),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이후의 인지적 신념을 기본세계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IPV 피해 이후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PTSS의 유지 및 발달과 높은 관련이 있다(Lilly, Howell, & Graham-Bermann, 2015).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높은 회피 증상과,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낮은 회피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Zukerman & Korn, 2014), 낮은 수준의 '세상에 대한 우호성'과 '자기 가치'가 높은 수준의 우울,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lly & Pierce, 2013). 또한, IPV 피해 심각도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을 통해 높은 수준의 PTSS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Lilly, Howell, & Graham-Bermann, 2015), IPV 피해 경험 이후 기본세계관이 PTSS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는 기제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사건 이후 PTSD가 나타나는 데 있어 대표적인 보호 요인으로(Wang, Chung, Wang, Yu, & Kenardy, 2021), 외상 후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높은 PTSS가 나타날 수 있다(Besser & Neria, 2012). 이때 사회적 지지는 실제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Koucky, 2013), 외상 후 타인에 대한 믿음인 기본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Nietlisbach & Maercker, 2009). 특히,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주변으로부터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Charuvastra, & Cloitre, 2008). 실증 연구에서도 외상 후 부정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였으며(Dodson & Beck, 2019), 외상 후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증가할수록 우호적인 사회적 태도가 감소하였다(Biruski, Ajdukovic, & Stanic, 2014). 또한, Koucky(2013)의 연구에서 외상 후 자기,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낮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높은 PTSS를 설명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기본세계관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PTSS를 예측하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한편, 외상 후 인지가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 또한 제안되었기 때문에(Guay, Billette, & Marchand, 2006; Joseph, Williams, & Yule, 1997),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외상 후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는 자신의 일상을 다시 안정적으로 구축하고(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감정 교류를 통해 부정적인 기본세계관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돕기 때문에, PTSS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orowitz, 1976). 경험연구에서 외상 후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인지를 통해 높은 수준의 PTSS로 이어졌으며(Belsher, Ruzek, Bongar, & Cordova, 2012), 외상 후 가족, 친구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가 역기능적인 인지를 통해 PTSS를 악화시키는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oodward et al., 2015). 이와 같이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Koucky, 2013).

외상 후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는 정서조절곤란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 수용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Gross, 1998). 따라서,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 식별, 주의, 표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Gratz & Roemer, 2004). 대인관계 외상 이후의 높은 정서조절곤란은 PTSS의 심화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Goldsmith, Chesney, Heath, & Barlow, 2013). 외상사건 이후 개인, 세계, 타인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외상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에 대한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a, Ehlers, Clark, Tolin, & Orsillo, 1999). 특히,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부정 정서에 역기능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높여, PTSS의 유발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Barlow, Turow, & Gerhart, 2017; Ehlers & Clark, 2000)

이에 더해,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가 PTSS를 설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상 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잘 다루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감소시켜(Charuvastra & Cloitre, 2008; Kline & Palm Reed, 2021; Tresno & Mearns, 2016), PTSS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외상 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사회적 소외감은 PTSS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Guay, Billette, & Marchand, 2006; Ullman & Filipas, 2001). Kline과 Palm Reed(20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배신 외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소극적인 대인관계 참여로 인해 정서조절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매개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타인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Kline & Palm Reed, 2021), 본 연구에서는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외상 후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 PTSS의 관계에서 일부 경로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PTSS가 유발될 수 있는지 하나의 경로에서 살펴본 경험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한 순차매개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탐색할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Kline & Palm Reed, 2021),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설명하는 순차매개 경로를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연구 문제 1.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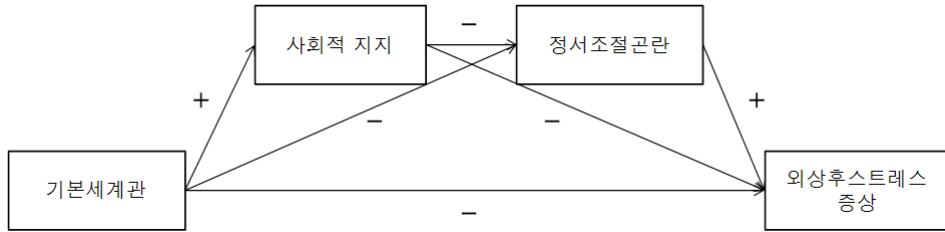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는가?

연구 문제 2.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3.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4.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가? 이에 더해, 대안모형으로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를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20~30대 대학생 233명(남성 112명, 여성 1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구글 온라인 설문지 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20~30분이었다.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의 의무와 권리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가자에게는 크레딧이 지급되었다. 결과 분석에서는 과거 또는 현재에

친밀한 관계의 상대(예, 연인, 배우자, 동거자)와 교제(데이트)했던 경험이 없었던 참가자 73명(31%)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IPV 피해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갈등 책략 척도(CTS-2)의 모든 문항에 대해 ‘없음(0회)’에만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34명(남성 77명, 여성 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가자 중 만 나이가 20세~24세인 참가자가 81명(60%), 만 20세 미만인 44명(33%), 만 25세~29세가 7명(5%), 만 30세~34세와 만 35세~39세가 각각 1명(각 1%)이었다.

측정도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IPV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제작하고 김정란(1999)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번안, 수정한 갈등 책략 척도 개정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을 사용하였다. 과거 또는 현재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의 상대와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총 22문항이며 ‘심리적 폭력’ 11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제 기간 동안 총

몇 회 정도의 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반영하였으며, 교제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1명과 교제 중일 때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을 지시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없음(0회)’(1점)에서부터 ‘1-2회’(2점), ‘3-5회’(3점), ‘6-10회’(4점), ‘11회 이상’(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피해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이순(202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심리적 폭력’ .91, ‘신체적 폭력’ .94, ‘성적 폭력’ .91, 전체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PTSS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은 Weiss와 Marmar(1997)이 보완한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를 은현정 등(2005)이 타당화한 것이다. IPV 피해 경험으로 인해, 최근 6개월 간 느낀 어려움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은 총 2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많이 있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건 충격 정도를 의미한다. 은현정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회피’ .70, ‘과각성’ .87, ‘침습’ .63, 전체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기본세계관

기본세계관을 측정하기 위해, Janoff-Bulman (1989)이 개발하고 홍혜인(2015)이 번안한 기본

세계관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IPV 피해 이후 현재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에 동의하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홍혜인(2015)의 요인 분석 결과 7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총 32 문항으로 선하고 우호적인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인 ‘선하고 우호적인 가정’ 8문항, 공정한 결과 분배에 관한 ‘공정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력’, 우연에 의해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는 ‘무작위성’, 자신이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가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기통제력’, 운이 좋다는 ‘행운’이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점 Likert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6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기본세계관과 반대되는 개념인 ‘무작위성’에 대해 역채점을 실시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Van Bruggen et al., 2018), 결과적으로 2, 3, 6, 8, 12, 15, 18, 24, 31번 문항이 역채점되었다. 홍혜인(201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선하고 우호적인 가정’ .79, ‘공정성’ .67, ‘통제력’ .70, ‘무작위성’ .63, ‘자기가치’ .73, ‘자기통제력’ .74, ‘행운’ .86, 전체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유희정(2012)이 수정한 것이다. 총 25 문항으로, 개인이 평소 지각한 가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정

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정서적지지' .92, '평가적지지', .91, '정보적지지' .92, '물질적지지' .87, 전체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는 Gratz와 Roemer(2004)의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수정 및 타당화한 것이다. 총 35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총 6개이며, '충동통제곤란' 8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3문항이 포함된다.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8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7,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76,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86, 전체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 변인들에 대해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성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V.3.3)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에 더해, Model 6를 사용하여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그리고 대안모형의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Bootstrap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신뢰 수준 9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 분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연구변인들이 일관적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PTSS는 기본세계관과 유의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134)

	1	2	3	4
1. 기본세계관	-			
2. 사회적 지지	.505***	-		
3. 정서조절곤란	-.513***	-.451***	-	
4.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248**	-.207*	.305***	-
평균	121.433	100.575	85.530	40.694
표준편차	18.630	16.923	22.932	19.361
최솟값	68	56	40	22
최댓값	168	125	148	98
왜도	-.110	-.666	.428	1.128
첨도	.416	-.063	-.337	.362
신뢰도	.867	.958	.934	.962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48, p < .01$). 또한, PTSS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r = -.207, p < .05$),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305, p < .001$).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451, p < .00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측정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독립 표본 t 검정 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하위요인인 성적 폭력($t = -2.465, p < .05$)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세계관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459, p < .001$), 기본세계관($B = -.200, ns$)과 사회적 지지($B = -.126, ns$) 모두 PTS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탐색되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58, 95\% CI = [-.171, .045]$.

표 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남성 n = 77, 여성 n = 57)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성	여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29.844(6.446)	29.561(7.285)	0.237
심리적 폭력	18.195(5.676)	17.842(6.439)	0.336
신체적 폭력	7.584(1.250)	7.474(1.638)	0.444
성적 폭력	4.065(0.296)	4.246(0.544)	-2.465*
기본세계관	123.273(20.519)	118.947(15.556)	1.333
사회적 지지	102.623(14.865)	97.807(19.150)	1.579
정서조절곤란	82.753(21.752)	89.281(24.123)	-1.639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40.221(19.907)	41.333(18.753)	-0.328

주. * $p < .05$.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세계관은 정서조절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631, p < .001$). 기본세계관은 PTS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 = -.130, ns$), 정서조절곤란은 PTSS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3, p < .05$).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탐색되었으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128, 95\% CI = [-.252, -.021]$.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본세계관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459, p < .001$). 다음으로, 기본세계관($B = -.471, p < .001$)과 사회적 지지($B = -.349, p < .01$) 모두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PTSS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B = .192, p < .05$), 기본세계관($B = -.110, ns$)과 사회적 지지($B = -.059, ns$)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기본세계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PTSS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27, 95\% CI = [-.136, .082]$. 반면, 기본세계관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PTSS를 설명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 = -.090, 95\% CI = [-.197, -.012]$. 기본세계관이

표 3. 연구모형의 순차매개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F	df1		df2
사회적 지지	기본세계관	.459	.068	6.724***	.324	.594	45.210***	1	132	.255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지지	-.349	.114	-3.070**	-.574	-.124	29.726***	2	131	.312
	기본세계관	-.471	.103	-4.554***	-.675	-.266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지지	-.059	.114	-.519	-.284	.166	5.150**	3	130	.106
	정서조절곤란	.192	.084	2.273*	.025	.359				
	기본세계관	-.110	.108	-1.023	-.323	.103				

주. * $p < .05$, ** $p < .01$, *** $p < .001$.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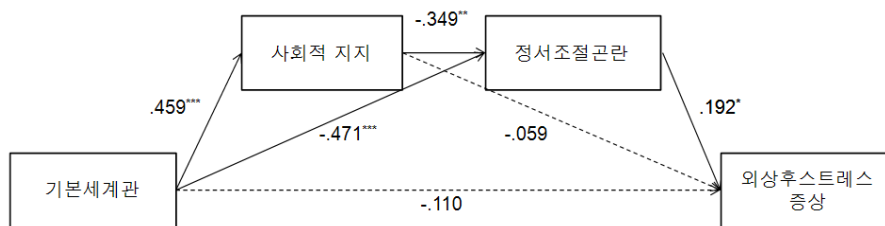


그림 2. 기본세계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주.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순차매개효과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258	.088	-2.945**	-.431	-.085
간접효과 (total)	-.148	.070		-.293	-.016
매개효과1: X->M1->Y	-.027	.055		-.136	.082
매개효과2: X->M2->Y	-.090	.048		-.197	-.012
매개효과3: X->M1->M2->Y	-.031	.020		-.079	-.002

주. ** $p < .01$.

X = 기본세계관, M1 = 사회적 지지, M2 = 정서조절곤란, Y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31$, 95% CI=[-.079, -.002].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대안모형의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기본세계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556$, $p<.001$).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B=-.349$, $p<.01$)와 기본세계

관($B=-.471$, $p<.001$)은 모두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PTSS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B=.192$, $p<.05$), 사회적 지지($B=-.059$, ns)와 기본세계관($B=-.110$, ns)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을 거쳐 PTSS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061$, 95% CI=[-.206, .068]. 반면,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PTSS를 설명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5. 대안모형의 순차매개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F	df1	df2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지	.556	.083	6.724***	.393	.720	45.210***	1	132	.255
	정서조절곤란	-.471	.103	-4.554***	-.675	-.266	29.726***	2	131	.312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기본세계관	-.110	.108	-1.023	-.323	.103	5.150**	3	130	.106
	정서조절곤란	.192	.084	2.273*	.025	.359				
	사회적 지지	-.059	.114	-.519	-.284	.166				

주. * $p < .05$, ** $p < .01$, *** $p < .001$.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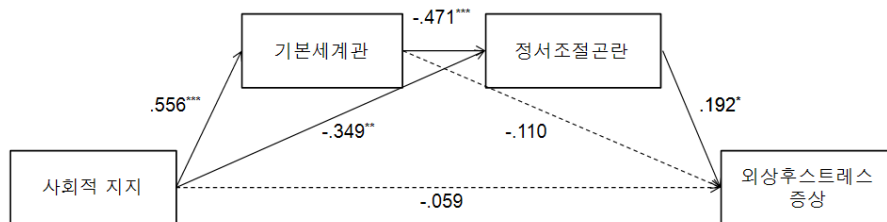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주.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대안모형의 순차매개효과

	<i>B</i>	<i>S.E</i>	<i>t</i>	95% CI	
				LL	UL
총효과	-.237	.097	-2.437*	-.430	-.045
간접효과 (total)	-.178	.082		-.350	-.024
매개효과1: X->M1->Y	-.061	.069		-.206	.068
매개효과2: X->M2->Y	-.067	.042		-.165	-.004
매개효과3: X->M1->M2->Y	-.050	.028		-.113	-.006

주. * $p < .05$.

X = 사회적 지지, M1 = 기본세계관, M2 = 정서조절곤란, Y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B = -.067$, 95% CI = $[-.165, -.004]$.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50$, 95% CI = $[-.113, -.00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세계관이 PTSS를 설명하는 기제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세계관이 PTSS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이 낮은 수준의 PTSS를,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이 높은 수준의 PTSS를 나타낼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Zukerman & Korn,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Janoff-Bulman(1989, 1992)의 조각난 가정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외상 후 부정적인 인지적 신념이 PTSS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Brown, Belli, Asnaani, & Foa, 2019). 이를 통해, IPV 피해 이후 피해자의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계관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PTSS의 발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매개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PTSS를 설명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이다(Cai, Ding, Tang, Wu, & Yang, 2014; Wilson & Scarpa, 2014).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가자들이 보고한 IPV 피해 중 심리적 폭력의 비중이 가

장 높았던 결과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무형의 심리적 폭력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이를 폭력의 일종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Stein et al., 2022). 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연결짓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 여부가 PTSS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개인의 통제감과 관련된 정서조절곤란의 경우, 심리적 폭력으로 인한 PTSS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IPV 피해 유형이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조절곤란이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본세계관은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이 정서조절곤란의 심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PTSS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Mazloom, Yaghubi, & Mohammadkhani, 2016).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 후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계관이 개인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TSS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때, 기본세계관은 사회적 지지를 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을 통해 PTSD를 예측한다는 Kline과 Palm Reed(20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지적 변인인 기본세계관의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친밀한 상대로부터 발생한 폭력은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며,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타인을 신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연인, 배우자 관계로 규명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심각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빈번하다(김효정, 2022).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숨기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김재한, 2019). 그 결과,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거나(Koucky, 2013), 실제와 무관하게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Dunmore, Clark, & Ehlers, 1997). 이렇게 지각된 주변으로부터의 낮은 지지는 외상 후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Kline & Palm Reed, 2021), 결국 PTSS의 심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대안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기본세계관을 정적으로, 기본세계관은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IPV의 특성에 기반하

여 이해해볼 수 있다. IPV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때, 오히려 외상 후 기대되는 낮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민정, 2015; Tirone et al., 2021),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IPV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인지적 신념과 주변으로부터의 지지가 영향을 주고받는 기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 후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이 PTSS를 예측하는 기제를 하나의 경로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치료 연구에서 위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볼 필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IPV 피해 이후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이 PTSS의 완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외상 후 PTSS의 발달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Goldsmith, Chesney, Heath, & Barlow, 2013; Kline & Palm Reed, 2021; Mazloom, Yaghubi, & Mohammadkhani, 2016),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와 같은 정서조절곤란의 완화에 초점을 둔 개입이 IPV 피해자의 PTSS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상 후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 개선이 정서조절곤란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IPV 피해 이후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PTSS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IPV 생존자의 PTSS에서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Caldwell, Swan, & Woodbrown, 2012; Coker, Weston, Creson, Justice, & Blakeney, 2005). 이에 따라 연구 참가자가 경험한 IPV 피해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중 성적 폭력에서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의 종류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피해의 종류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성적 외상사건 피해자의 PTSS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나타났으며(Tirone et al., 2021), 대인관계 외상 이후 피해 유형에 따라 인지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Botsford et al., 2019).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곤란과 PTSS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지지되었다(Kline & Palm Reed, 2021). 따라서 추후 PTSS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IPV 종류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연구 참가자 중 만 나이가 19세~24세인 참가자가 125명(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 참가자의 나이 분포가 성인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편중된 표집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설문 문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군 또는 다양한 나이대의 충분한 수의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 설계로 인해 본 연구의 변인들 간 인과 관계를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및 종단 연구,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와 같은 측정 방법을 통해 연구 참가자의 일상적인 정서 변화와 그로 인한 PTSS의 관계 변화를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선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였지만, 변인 간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PTSS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 외상경험, IPV 피해 수준, IPV 피해 시기와 같은 중요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전 외상 경험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반복된 IPV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PTSS가 나타날 위험성이 더 높으며(Dutton, 2009), 대인관계 외상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PTSS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이에 더해,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기에 따라 PTSS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Ogle, Rubin, & Siegler, 2013), IPV 피해 경험 시기가 연구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을 포함시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매개 경로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모형을 통해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다양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IPV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사회적 시선과 지지 체계의 유무가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향후 PTSS 치료 장면에서 외상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방법이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15). 지각된 성폭력 고정관념이 성폭력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23(3), 173-200.
- 김소향, 최지영 (2018). 외상후인지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 188-216.
- 김재한 (2019).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9(2), 1-27.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22).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112, 65-91.
- 문이순 (2020).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神經精神醫學*, 44(3), 303-310.
- 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대학생의 대인외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상경험 관련 변인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0(2), 95-117.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홍혜인 (2015). 성장글쓰기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기본 세계관과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ar, E., Kennedy, P., & King, N. S. (2006). The role of negative cognitive appraisals in PTSD symptoms following spinal cord injurie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4(4), 437-45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 Bailey, B., & Morris, M. C. (2018). Longitudinal associations among negative cognitions and depressiv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women recently exposed to stalk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1-12), 5775-5794.
- Barlow, M. R., Turow, R. E. G., & Gerhart, J. (2017). Trauma appraisals,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self-compassion predict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ollowing childhood abuse. *Child abuse & neglect*, 65, 37-47.
- Beck, J. G., Jones, J. M., Reich, C. M., Woodward, M. J., & Cody, M. W. (2015). Understanding the role of dysfunctional post-trauma cognitions in the co-occurr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wo trauma samp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70, 23-31.
- Belsher, B. E., Ruzek, J. I., Bongar, B., & Cordova, M. J. (2012). Social constraints,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eatment-seeking trauma survivors: Evidence for a social-cognitive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386-391.
- Besser, A., & Neria, Y. (2012). When home isn't

- a safe haven: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SD symptoms among Israeli evacuees under missile threa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1), 34-46.
- Biruski, D. C., Ajdukovic, D., & Stanic, A. L. (2014). When the world collapses: changed worldview and social reconstruction in a traumatized commun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4098.
- Black, M. C., Basile, K. C., Breiding, M. J., Walters, M. L., Merrick, M. T., Chen, J., & Stevens, M. R. (2011).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 summary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Botsford, J., Steinbrink, M., Rimane, E., Rosner, R., Steil, R., & Renneberg, B. (2019). Maladaptive post-traumatic cognitions in interpersonally traumatized adolesc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analysis of "stuck-poi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3, 284-294.
- Brown, L. A., Belli, G. M., Asnaani, A., & Foa, E. B. (2019). A review of the role of negative cognitions about oneself, others, and the world in the treatment of PTS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3, 143-173.
- Cai, W., Ding, C., Tang, Y. L., Wu, S., & Yang, D. (2014).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afe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6), 724-730.
- Caldwell, J. E., Swan, S. C., & Woodbrown, V. D. (2012).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utcomes. *Psychology of violence*, 2(1), 42-57.
- Charuvastra, A., & Cloitre, M. (2008). Social bond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301-328.
-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Eds.).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 Coker, A. L., Weston, R., Creson, D. L., Justice, B., & Blakeney, P. (2005). PTSD symptoms among men and wome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20(6), 625-643.
- Cromer, L. D., & Smyth, J. M. (2010). Making meaning of trauma: Trauma exposure doesn't tell the whole stor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 65-72.
- Dodson, T. S., & Beck, J. G. (2019). Do negative attitudes about using social support matter in the association of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Comparison of female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child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1-22), 1-21.
- Dunmore, E., Clark, D. M., & Ehlers, A. (1997). Cognitive factors in persistent versus recov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physical or sexual assault: A pilot study.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5(2), 147-159.
- Dutton, M. A. (2009). Pathways link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osttraumatic disorder.

- Trauma, Violence, & Abuse*, 10(3), 211-224.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lanagan, J. C., Jaquier, V., Overstreet, N., Swan, S. C., & Sullivan, T. P. (2014).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ce coping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victimiz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among women experiencing bidirectional IPV. *Psychiatry research*, 220(1-2), 391-396.
- Foa, E. B., Ehlers, A., Clark, D. M., Tolin, D. F., & Orsillo, S. M. (1999).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1(3), 303-314.
- Goldsmith, R. E., Chesney, S. A., Heath, N. M., & Barlow, M. R. (2013).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mediate associations between betrayal trauma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3), 376-384.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ay, S., Billette, V., & Marchand, A. (2006). Exploring the links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and potential research avenu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9(3), 327-33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rowitz, M. J. (1976). *Stress response syndromes*. New York: Jason Aronson.
- Horowitz, M. J.,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113-136.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Free Press.
-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7). *Understanding Post-Traumatic Stress: A Psychosocial Perspective on PTSD and Treat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Kaufman, J. S., Allbaugh, L. J., & Wright, M. O. (2018). Relational wellbeing following traumatic interpersonal events and challenges to core belief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1), 103-111.
- Kline, N. K., & Palm Reed, K. M. (2021). Betrayal vs. nonbetrayal trauma: Examining th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on PTSD symptom sever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 practice, and policy*, 13(7), 802-809.
- Koucky, E.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social support in the severity of PTSD sympt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Louis: University of Missouri.
- Lilly, M. M., Howell, K. H., & Graham-Bermann, S. (2015). World assumptions, religiosity, and PTSD i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1), 87-104.
- Lilly, M. M., & Pierce, H. (2013). PTSD and depressive symptoms in 911 telecommunicators: The role of peritraumatic distress and world assumptions in predicting risk.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2), 135-141.
- Lilly, M. M., Valdez, C. E., & Graham-Bermann, S. A.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world assump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osure and de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2499-2516.
- Maschi, T., & Baer, J. (2013). The heterogeneity of the world assumptions of older adults in prison: Do differing worldviews have a mental health effect?. *Traumatology*, 19(1), 65-72.
- Mazloom, M., Yaghubi, H., & Mohammadkhani, S. (2016).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metacognition, emotional schema and emotion regula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 94-98.
- Nietlisbach, G., & Maercker, A. (2009). Social cognition and interpersonal impairments in trauma survivors with PTSD.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4), 382-402.
- Ogle, C. M., Rubin, D. C., & Siegler, I. C. (2013).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al timing of trauma exposure on PTSD symptom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mong older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11), 2191-2200.
- Resick, P. A., & Schnicke, M. K. (1992).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for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48-756.
- Simpson, L. E., Raudales, A. M., Reyes, M. E., Sullivan, T. P., & Weiss, N. H.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direct effects through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5-16), 1-28.
- Stein, S. F., Galano, M. M., Grogan-Kaylor, A. C., Clark, H. M., Ribaud, J. M., & Graham-Bermann, S. A. (2022).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by multiple partners over a period of 8 yea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5(1), 222-23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g, N.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Prevalence, health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 *Medical Clinics*, 99(3), 629-649.
- Tirone, V., Orlowska, D., Lofgreen, A. M., Blais, R. K., Stevens, N. R., Klassen, B., Held, P., & Zalta, A. K.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 stress symptoms among survivors of betrayal trauma: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2(1), 1883925.
- Tresno, F., & Mearns, J. (2016). Expectancies for social support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self-inju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 Behavioral Sciences*, 2(2), 2-15.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ac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369-389.
- Van Bruggen, V., Ten Klooster, P. M., Van der Aa, N., Smith, A. J., Westerhof, G. J., & Glas, G. (2018). Structural validity of the world assumption sca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6), 816-825.
- Van Heemstra, H. E., Scholte, W. F., Ehring, T., & Boelen, P. A. (2020). Contextualizing cognitions: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among Palestini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13, 159-172.
- Wang, Y., Chung, M. C., Wang, N., Yu, X., & Kenardy, J. (2021).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5, Article 101998.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s Scale-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pp.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 Wilson, L. C., & Scarpa, A. (2014). Childhood abus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moderation model.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5), 512-518.
- Woodward, M. J., Eddinger, J., Henschel, A. V., Dodson, T. S., Tran, H. N., & Beck, J. G. (2015).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TSD: The influence of family, friends, and a close other in an interpersonal and non-interpersonal trauma group.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5, 60-67.
- Zukerman, G., & Korn, L. (2014). Post-traumatic stress and world assumptions: The effects of religious cop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 1676-1690.

1차원고접수 : 2023. 10. 13.
심사통과접수 : 2023. 12. 18.
최종원고접수 : 2023. 12. 30.

Impact of The World Assumptions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Joohyeon Kim

Hyein Ch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pathway from the world assumptions to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suffer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Considering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the alternative model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the world assumptions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or this study, a total of 134 college students (77 males, 57 females) completed questionnaires through online survey.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other words, individuals with lower positive world assumptions showed lower perceived social support, high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higher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urthermor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n alternative model were also significant, supporting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s and social support.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ld assumptions, social support, emotion dysregulat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